

농산물을 디톡스 하라!

- 풍성한 제철과일 맘껏 섭취 -

■ 홍보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일년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 풍성한 제철과일을 맘껏 섭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리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민감하다.

지난 8월 29일 KBS 1TV 「과학카페」 프로그램에서는 「농산물을 디톡스 하라! 잔류농약 제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및 안전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정의 및 전문가 의견과 실제 농산물을 구입, 잔류농약 제거를 위한 실험 결과를 방영하는 등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과학카페」는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잔류농약을 법으로 규정한 양’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은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유해물질과 진용덕 박사는 프로그램에서 “잔류기준을 초과한 식품물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섭취한다

면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는 의견을 내 주었다. 그렇다면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농산물의 세척방법에 의한 제거율을 예로 들어 농촌진흥청에 실험을 의뢰했다. 같은 종류의 상추를 담아 놓은 물과 흐르는 물, 그냥 수돗물과 소금물, 세제를 이용해 세척했을 때의 제거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담아 놓은 물에서 3회 이상 세척할 경우 농약 제거 효과가 현저히 높았다(표 1). 또한 수돗물과 소금물, 세제물의 농약잔류량 제거율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표 2).


이번 실험에 참여한 농촌진흥청 유해물질과 권혜영 연구사는 “농산물을 세척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잔류허용기준치를 통과한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맘껏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표 1. 디메토르포프 수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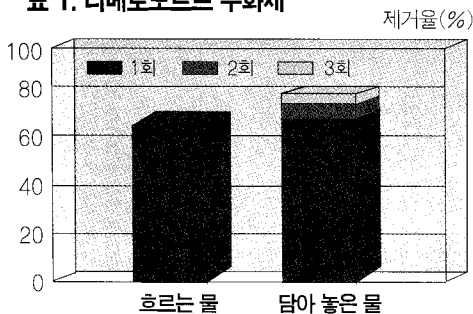


표 2. 디에토펜카브 수화제

